

세계 각국의 사회문화를 보는 새로운 시각

캄보디아·브라질·호주 등 역사와 문화 본격 소개

최근 세계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거나 현지 체험을 바탕으로 그 나라를 소개하는 책들이 활발히 출간되고 있다. 학회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 등을 폭넓게 살핀 개론서부터 파견 근무를 통해 직접 체험한 깊이 있는 각국체험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런 세계각국 문화소개서는 여행안내 책자와 달리,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최근 나온 책들은 냉전 체제 하에서 우리와 교류가 없었던 미답의 지역과 영·미·일의 사회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아우르고 있다.

시장확보를 위한 지역연구

해외시장으로 적극적인 진출을 피하면서, 현지인의 관습과 역사에 대한 이해 없이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 나라의 사회문화를 모르는 채 무역을 한다는 것은 시행착오를 낳게 마련이다.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사회를 담은 개론서가 더욱 반갑다.

《한 권으로 이해하는 중국》(지영사)은 강준영·전병근·지세화씨의 공저. 한중관계와 12억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주민 소비성향의 변화와 최근 홍콩의 귀속으로 야기되는 무역환경의 변화와 대안 등을 모색했고 다양한 사회문화 분석을 통해 새로운 거대시장으로서의 중국을 고찰한 책이다.

고대, 중세, 근세, 현대로 나누어 캄보디아의 영광의 역사와 현대의 비극을 개괄한 《캄보디아를 아십니까?》(삶과꿈)는 지역소개에 앞서 역사를 소개한 책. 일찍이 동남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왕국이자 앙코르 왕국을 건설했던 크루드족은 인간이 꽃피울 수 있는 문화의 경지를 최고조로 높인 앙코르 사원의 주인공이다. 그러나 힌두교도와 불교, 태국과 베트남이라는 외세의 침략과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 공산권의 통일 등을 거치면서 캄보디아는 현대사를 얼룩지게 하는 내전의 현상이 되었다. 비교문화와 신지학을 공부한 저자 양기식씨는 캄보디아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프랑스의 보호정치와 캄보디아의 비극을 안겨다 준 크메르 루즈의 공산혁명 전후사정, 현재 캄보디아 왕국의 성립기까지 정치적 사건을 세세히 다뤘다.

우리와 교류가 없던

세계 여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현지체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소개한 책들이 부쩍 눈에 띈다.

이들 책은 이제까지의

여행안내서와는 달리

그 나라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다채롭게 안내해

지역연구의 기초작업으로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남미쪽으로 관심을 가진 책도 주목을 끈다. 삼바축제와 축구열기, 거대한 아마존 밀림으로 상징되는 브라질에 관한 책 《브라질 문화의 틈새》(다다미디어)가 그것.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브라질의 풍물일 뿐이며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쓴 책이다. 중남미 최대 경제블러인 메르코 수르(남미 공동시장)의 실질적인 맹주이자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 막강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내 거인국으로서의 브라질의 면모를 담았다. 이 책 역시 거대한 상품시장으로서의 브라질에 주목할 것을 주장한다.

《호주의 사회와 문화》(지구문화사)는 중앙대학교 호주학연구소의 김형식 소장이 집필. 이 책은 새로운 교역국인 호주에 대한 호주의 일반적인 역사와 문화적 배경, 정치제도·가치관·풍습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 다루었다. 태평양 연안국가의 일원으로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호주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풍습 등 호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추구한다. “한·호 관계의 관계증진을 위해 긴밀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으로 임하겠다.”고 중앙대학교 안충영 국제대학원장은 말한다.

문화이해를 위한 새로운 시각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미·일의 사회문화를 본격적으로 다룬 색다른 책들도 눈에 띈다. 영문학자 태혜숙 교수

(효성여대 영문학)가 쓴 《미국문화의 이해》(중명)는 미국문화, 미국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접근한 책으로 현지체험담과는 밀도가 다르다. 대학에서 행한 미국문화 강의를 바탕으로 문헌뿐 아니라 영화, 대중음악을 끌어들여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먼저 미국역사를 이끌어 온 몇가지 주요한 이즘을 중심으로 그것들 사이의 연관관계와 영향, 변모과정을 살핀다. 미국의 초기 역사에서 핵심적인 청교도주의, 초절주의, 계몽사상과 여기서 파생된 팽창주의와 실용주의를 둘러싼 요점들을 제시해 미국문화의 원동력을 이해하고자 했다.

소설과 영화, 대중음악을 통해 미국문화 실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도 시도한다. 미국의 팝으로 대표되는 대중음악이 지구촌의 하나의 언어가 되다시피한 이유를 ‘문화융합’이라고 설명하는 분석이 돋보인다. 태혜숙교수는 “전 세계의 대중을 대상으로 문화 생산을 주도하는 미국 현실을 감안할 때 고급문화 중심주의를 더이상 당연한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대중문화 분석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출간된 《영국 그 나라를 알고 싶다》(서문당)도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영국을 본격 소개한 책이다. 영국 주재 외교관으로 근무한 저자가 영국의 제도와 문물 등을 소개했다. 로마의 지배로부터 북아일랜드 사태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역사, 영국을 구성하고 있는 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의 지역특색과 영국 국민성

을 다루었고 영국의 경제 현황 및 제도, 교육제도나 BBC같은 공영방송제도, 축구, 골프 등 각종 스포츠 장려정책과 국적 및 출입국 관리제도 등을 소개하였다. 영국을 여행하거나 유학하는 사람들을 위해 각종 관광지 소개와 영국 치류종 알아야 할 참고사항 수록도 보너스.

《알집고도 부러운 나라 일본》(박이정)은 저자가 일본유학 10년 동안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체험한 일본을 담았다. 일련의 ‘일본알기책’과 같은 극일의 문제제기와는 다르다. 일본의 정치·경제·교육 등 사회문화 전반을 이해하고 특히 제일동포 사회를 바라보며 일본, 일본인의 내면적인 요소인 신용과 조직력, 행동양식 등을 분석했다. 한국 기업인들의 일본기업연수와 견학 가이드로 아르바이트로 했던 경험에서 한국인과 일본인 양자를 객관적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극일’이나 ‘일본 알기’에 앞서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 이 글을 썼다는 것이 저자의 말이다.

세계각국의 사회문화를 소개한 책들은 변화하는 세계정세와 무역시장 확장의 산물이다. 냉전시대 종식과 세계경제의 블록화, WTO체제의 출범 등으로 각국은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새로운 협력과 경쟁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기 때문. 다양한 층위의 각국 관계의 출간과 지역연구는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 마정미 기자

